

최고최대 장서 갖춘 국가대표도서관

책의 해에 찾아가 본 책의 名所 ① - 국립중앙도서관

당연함을 앞세운 몰이해와 무관심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소홀히 넘기게 만든다. 책과 연관된 명소를 찾아나서는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어져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잘 아는 사람 또한 드문 그런 곳이 많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대표적인 경우. 우리나라 도서관의 본산이자, 메카인 이 곳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이해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형편이고, 기껏해야 학생들의 시험준비를 위한 ‘큰 독서실’ 정도라는 그릇된 인식이 뿌리 깊은 것도 그래서이다. ‘인류의 기억’인 도서관은, 책의 납골당이 아니라 책의 활력이 끊어 넘치는 무대여야 하는데 말이다. 우리의 도서관문화는 제도와 정책지원, 규모에서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이용이란 측면에서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해왔고, 오히려 독서문화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굳이 외국의 그것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도서관문화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지루한 작업이긴 하지만, 책의 명소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소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도서관정보전산망’ 95년 완성 예정

책의 해인 올해로 개관 49주년을 맞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45년 10월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본관이, 마포구 아현동에 분관(46년)이 세워졌으며, 국립도서관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고 납본업무 시작한 것은 63년의 일이었다. 이후 74년과 81년 본관과 분관을 구 어린이회관과 역삼동으로 옮겼고, 본관은 88년 다시 서초구 반포동 현재의 신축건물로 자리를 바꿔 앉았다.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제반기능 수행업무를 맡고 있는 이 도서관은, 지원협력부와 열람관리부 이하 7개과로 구성돼 92년말 현재 130명의 사서를 비롯한 263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한편 본관 8층, 분관 7층으로 국내 도서관 가운데 최대규모를 지닌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시설은, 서고와 마이크로자료실, 신착자료실, 일반열람실, 주제별 자료실, 비도서 자료실, 개인문고실, 학위논문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식 시설도 중요하지만 역시 도서관의 권위와 자라는 장서수에 달려 있다. 국가문헌의 최종자료원이며, 귀중한 전적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이 도서관의 장서는 국보 보물

국보·보물급 전적을 비롯해
최신간 자료에 이르기까지 180만권의
장서를 보유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63년부터 시행해온 납본업무와
함께 전산화를 추진 이용자들의
편의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공공도서관 지원 및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 운영 등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수행업무를
맡고 있다.

등 귀중본을 포함한 고서와 45년 개관 이전에 수집된 구간도서와 납본자료, 그리고 국외자료로, 최근에는 정보량의 급증으로 연 13만여권의 도서가 증가되고 있으며 자료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91년 12월의 통계에 따르면 이 도서관의 장서량은, 동양서(1백2십만권) 서양서(16만권) 고서(20만권) 비도서자료(16만권) 등 총 180만권에 이른다. 이 엄청난 수량의 책 가운데, 우리 출판문화의 깊이와 우수성을 담보하는 국보와 보물로는 「十七史纂古今通要」(국보 148호)와 「釋譜詳節」(보물 523호) 「東醫寶鑑」(보물 1085호) 등이 소장돼 있다.

이처럼 규모와 시설, 장서량에서 최고와 최대를 자랑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국가서지통정기관으로서의 납본제도 운영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이 도서관 연속간행물 음반 비디오품 등을 발행 또는 제작할 때에는 한달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이 도서관에 납본하여 국가문헌으로서 국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된 도서관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한 것이 납본제도.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서가에는 국내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가 총망라돼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납본자료 이외에도 국내외 자료를 구입하거나 교환하고 있으며, ‘자료선정위원회’와 ‘고서위원회’를 두어 장서구성과 자료선정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들의 정리를 위한 전산화를 추진한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헌자동화목록법과 기술규칙을 개발해 이용자들의 편의는 물론 각급도서관의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다. 뿐만



지난 88년 서초구 반포동으로 이전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전경.

아니라 방대한 자료의 보존과 철저한 관리를 위한 항온, 항습, 방충 등의 시설과 학회를 이룸과 동시에 도서분실방지를 위해 전자감응장치와 원본훼손을 막는 마이크로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80년대들어 급증하고 있는 자료를 소화하려는 의도에서 82년부터 시도한 도서관업무 전산화는, 이 도서관의 역점사업으로 관내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국가문헌정보체계와 도서관협력망 구축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 전산화사업은, 한국문헌의 기계가독목록을 위한 기술규칙 등의 제정에서 컴퓨터 도입, 목록데이터 입력, 인쇄카드 공급의 순서로 진행돼, 오는 95년까지는 국내 주요도서관과 해외의 문헌정보 유통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의 수립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장서량이나 운영면에서 뒤떨어진 여타 도서관의 기능을 보완해줄 이 도서관정보전산망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중앙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19개관의 지역센터도서관, 그리고 350개관의 단위도서관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 특히 지역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부방된 도서관 현실 개선돼야”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밖에도 전국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운영을 지원하며, 신설 영세도서관의 자료지원과 사서증 발급업무를 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사업으로 각국의 주요도서관과의 자료지원과 사서증 발급업무를 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사업으로 각국의 주요도서관과의 자료교환과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등

국제기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유통과 문헌정보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막중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이와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간하는 자료는 국내의 각종자료를 한눈에 살피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데, 연간으로 발행되는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외국도서종합목록」 「학술논저종합색인」 「장서목록」과 월간인 「문헌정보」, 그리고 월간 연구지인 「도서관」 「도서관계」가 그것이다.

사서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과 문화행사 개최도 국립중앙도서관의 빠짐없는 일거리가 된다. 그러나 뼈뺀 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다 치루기는 역부족이어서, 문예학술진흥기금을 신청하고 (사)국민독서진흥회와 공동주최하는 등 묘안을 짜내기 바쁘다. 책의 해를 맞아 개최할 자료전시회와 청소년 책잔치를 비롯한 문화행사 또한 예산확보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책의 명소로 불려 마땅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예산부족의 고충보다 더 고민하는 것은 2백만에 가까운 연간 이용자의 80%가 넘는 재학생과 학생들의 공부방이 되다시피한 도서관문화 부재현상이다.

마치 독서실처럼 변질된 도서관문화에 대해 우려하는 문화연수와 최경천씨는 “도서관의 제 역할을 찾기 위해 어린이 위주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전한다. 시험철이면 자리를 내놓으라고 ‘협박’ 하는 학생들과 치르는 맥빠지는 싸움에 한국의 중앙도서관 사서들은 너무 지쳐 있다.

— 최태원 기자